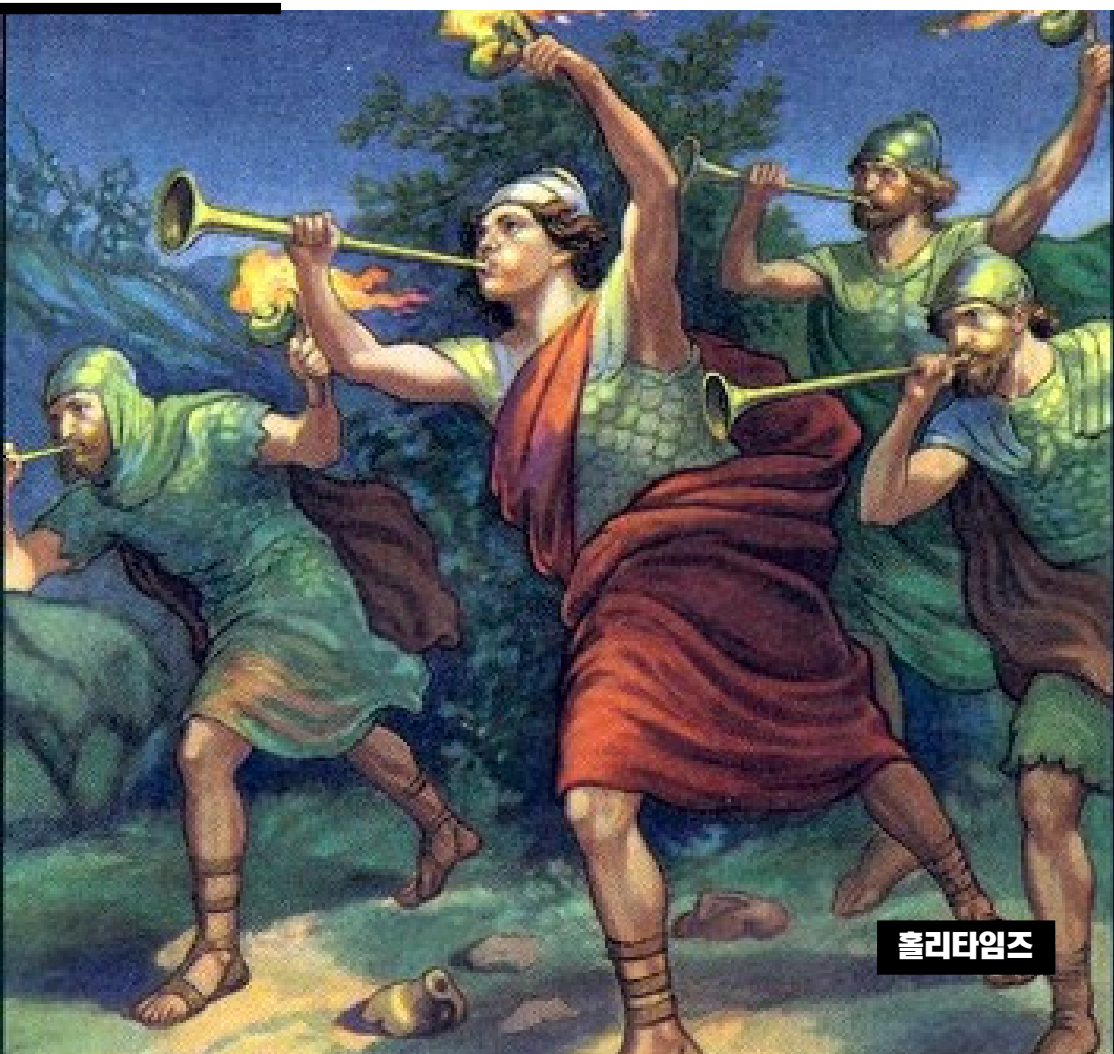


데이빗리 목사

사사기반 교재



홀리타임즈

제 1 장 사사기 개론

1. 역사적 배경

사사기는 대략 BC 1400-105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출애굽의 시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각 지파별로 거주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지파가 공동의 적을 대항하여 일시적인 연합을 이뤘습니다.

2. 사사기의 내용구분

가. 영적인 구조: 고난 - 회개 - 구원 - 타락의 과정이 400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의해 고난을 당할 때에는 회개하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으며 저들이 평안할 때 타락하였으며 타락할 때에 다시 외세의

침입을 당하였습니다.

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네가 지로 입증됩니다.

- 1) 불순종(Disobedience) :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명하신 가나안 일곱족속이 그 땅에 거하니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삿 1:27-28).
- 2)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했습니다(삿 2:10).
- 3) 우상숭배를 행했습니다(삿 2:11-12).
- 4) 이방인들과 혼합결혼을 행했습니다(삿 3:6).

다. 일곱번의 고난

- 1) 첫째 고난은 메소파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에게 침공을 받아 8년을 섬겼습니다(삿 3:7-11).
- 2) 둘째 고난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침공받아 18년을 섬겼습니다(삿 3:12-31).
- 3) 셋째 고난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가 침공하여 20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삿 4:1-5:31).

[삿 1:27]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므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삿 1:28]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삿 2:10]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삿 2: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비알들을 섬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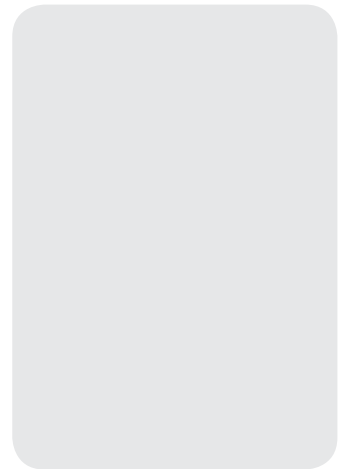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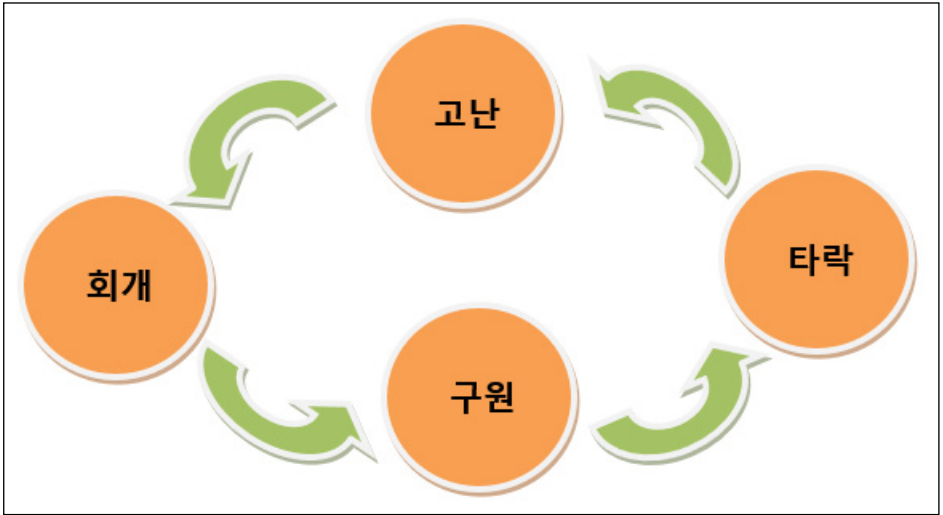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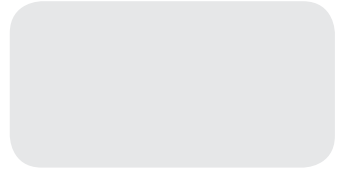
[삿 2: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 4) 넷째 고난은 미디안 군대에게 7년동안 압제당했습니다(삿 6:1-8:32).
- 5) 다섯째 고난은 기드온이 세마와 살문나를 죽이면서 그들 목에 있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했는데 그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고 음란하게 섬길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삿 8:33-10:5).
- 6) 여섯째 고난은 암몬 사람과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습니다(삿 10:6-12:15).
- 7) 일곱번째 고난은 블레셋에 침공을 당하고 40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삿 13:1-16:31).

3. 사사시대의 문제점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 땅의 혹시 남은 족속들이 있으면 통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

유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 그 후 400년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2장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삿 1:1-2). 우리는 매사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하나님께 여쭙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면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누구의 자문을 구했습니까? 당신은 매사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 일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차이는 어떠합니까?

2. 유다는 나중에 시므온이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 유다가 도와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면서 시므온에게 함께 전쟁에 임해주길 부탁했습

[삿 1: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삿 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니다. 시므온은 유다를 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삿 1:3). 형제가 서로 함께 할 때 더욱 든든해지며 악한 세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와 연합하여 모든 일을 함께 함으로써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유다가 시므온에게 제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유다는 시므온에게 그런 제의를 했을까요? 당신은 혼자서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형제와 함께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까? 형제와 함께 하는 것과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의 차이는 어떠한가요? 서로 의견을 나눠 봅시다.

3.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입니다.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았는데 저들은 주로 황무지에서 살았습니다(삿 1:16). 만일 모세가 살아 있었다라면 겐 자손이 황무지에 사는 것을 허락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겐 족속에 대해 무관심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친족을 돌아보는 자입니까?

▶ (그룹제안) 겐 사람이었던 모세의 장인 후손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만일 모세가 살아 있었다라면 장인 후손들을 어떻게 대우하였을까요? 왜 성경은 친족, 특

[삿 1:3]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삿 1: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였을까요?(딤후 5:8) 당신은 친족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4.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삿 1:21). 악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악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악을 쫓아냄으로써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악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은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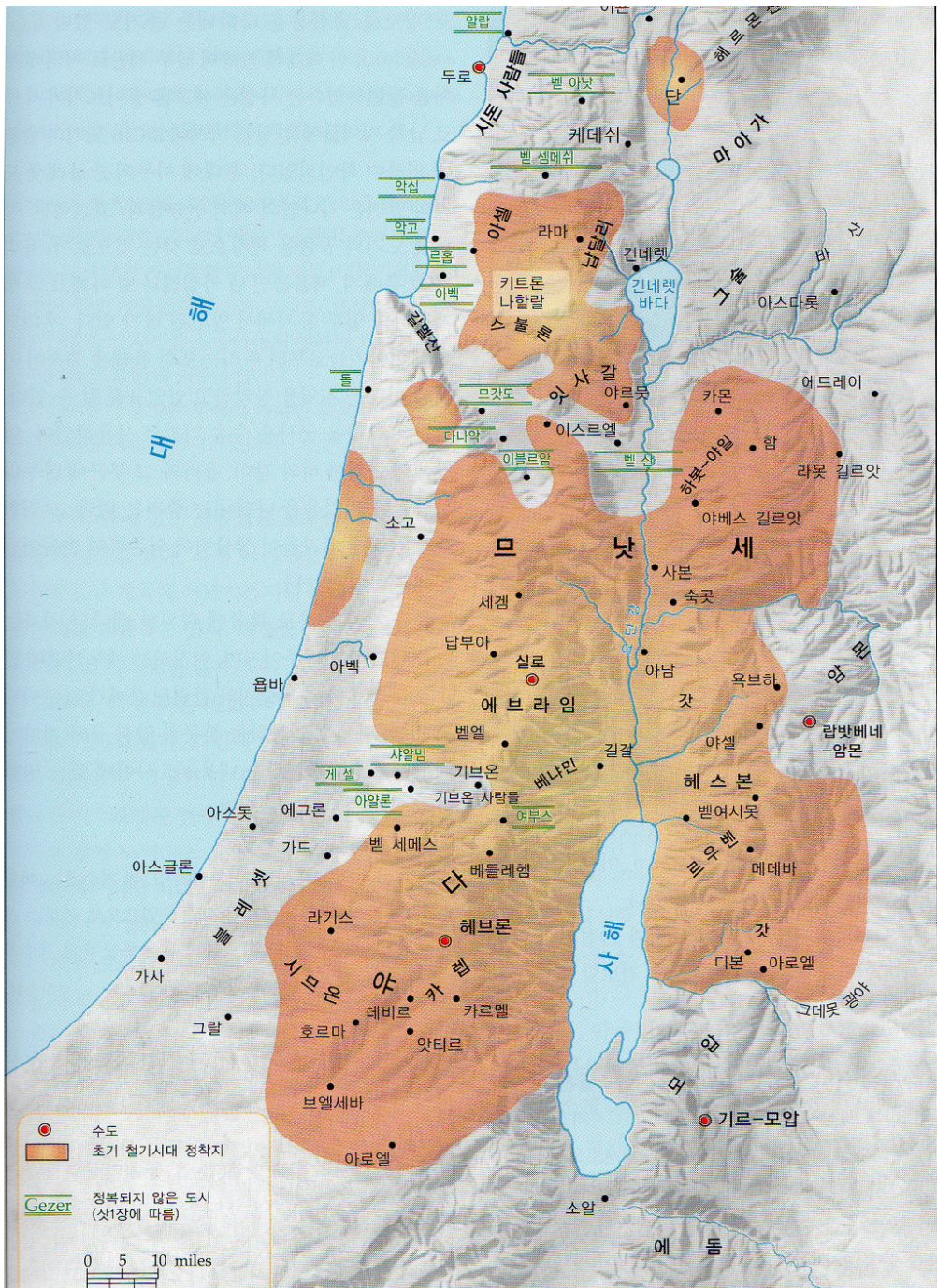
5. 므낫세 지파가 벵스안과 디아낙과 돌과 이블르암과 므깃도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을 때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습니다(삿 1:27-28). 우리가 악을 쫓아내지 못할 때 악은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악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삿 1: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삿 1:27] 므낫세가 벵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디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므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대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삿 1:28]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 (그룹제안) 르나세 지파가 정복할 땅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신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주변의 악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제거해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제3장 고난을 받는 조건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삿 2:1-3). 하나님은 저들의 적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며 오히려 저들의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우상이 저들의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악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악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변의 악을 정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혹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2. 여호와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

[삿 2:1] 여호와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 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삿 2:2]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찜이뇨

[삿 2: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삿 2:4). 내가 제거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 (그룹제안) 므낫세 지파가 정복할 땅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신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주변의 악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제거해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3.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열조에게로 돌아간 후에 자라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을 때 저들이 가나안 거민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삿 2:10-12). 자녀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

[삿 2:4]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삿 2:10]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 2: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삿 2: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4.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거민의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략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을 감당치 못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삿 2:13-15).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심으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모든 재앙이 임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거민의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재앙이 임하였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재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삿 2:13]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삿 2: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삿 2:15]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거할 장소로 가나안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저들의 악이 관영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저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가나안 우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처럼 우상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세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름	내 용
엘 (EL)	'엘'은 가나안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엘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으며 신들이 모여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을 인도하는 최고의장이었습니다. 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었으며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견주어서 '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세라 (Asherat)	아세라는 '엘'의 아내였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신은 나체 여신상으로 만들어져서 주로 바알신과 함께 숭배되어졌는데 이는 바알은 '엘'의 후계자이고 아세라는 '엘'의 아내로서 모든 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왕상 14:15, 왕하 13:6, 대하 31:1, 사 17:8, 렬 17:2).
바알 (Baal)	바알은 '엘'의 아들이며 후계자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 '하늘의 주(Lord of heavens)'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은 '다곤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다곤'은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삼상 5장, 사 16:23).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을 가장 많이 숭배했습니다(민 22:41, 사 10:6, 삼상 7:4, 왕상 19:18). 바알은 모압인들에 의해 '바알브올(Baal-Peor)' 혹은 '브올'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민 25:18). 또한 블레셋 인들은 바알을 '바알세불(Baal-Zebub)'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으로 마귀의 별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마 10:25, 막 3:22, 눅 11:15).
아낏 (Anath)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 중에는 아세라, 아낏,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아낏'은 '바알'의 누이이며 애인이었습니다. '아낏'의 모습은 정열적이고 흥분스러운 젊은 여성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아낏'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가리켜 '미동' 또는 '남색하는 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왕상 14:24, 왕상 15:12, 왕상 22:46, 왕하 23:76).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낏' 여신을 위해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마련했습니다(왕하 23:7).
아스다롯 (Ashtaroth)	'아스다롯'은 '저벌벌의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렬 44:19). '아스다롯'의 모습은 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했습니다(왕상 11:5).

이름	내 용
못 (Mot)	'바알'신이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착한 신이라면 '못'은 사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신이었습니다(욥 18:13-14). '못'은 '바알'과 싸워 승리하였으나 '바알'의 누이 '아낏'에게 패배한 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낏'은 죽은 '바알'을 살렸고 '바알'은 그렇게 가나안 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얌 (Yam)	가나안 족속에게 알려진 또 다른 악한 신은 얌입니다. 얌은 '못'과 함께 '바알'을 대적했습니다. 얌은 '리워야단'으로도 불리는데 그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같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얌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로 바다 깊은 곳에 산다고 여겼습니다. 구약에는 리워야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우리 나라 말로는 '악어'라고 번역되었습니다(시 74:14, 시 104:26, 욥 41:1, 사 27:1).
몰렉 (Molech)	'몰렉'은 '밀곰(Milcom)' '말감(Malcham)'으로 불려졌으며 암몬족속의 국가신이었습니다(레 18:21, 왕상 11:5, 왕상 11:33, 왕하 23:10, 렬 49:3, 행 7:43). 몰렉은 황소 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몰렉'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신 12:31, 겔 16:20). 모세는 몰렉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켰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몰렉'을 숭배했습니다(레 18:21, 레 20:1-5). 솔로몬은 '몰렉'을 위해 신당을 세웠으며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왕하 16:3, 왕하 21:6). 요시아 왕은 몰렉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시켰지만 오히려 유대 탈기 때는 더욱 몰렉 숭배가 왕성해졌습니다(렬 7:31, 겔 16:20-21, 겔 23:3, 겔 23:39). 사사시대 때 입다가 암몬 왕에게 "너희 신 그모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모스'가 '몰렉'입니다(삿 11:24).
그모스 (Chemosh)	'그모스'는 모압인의 국가신이었습니다(왕상 11:7, 왕하 23:13, 렬 48:7). '그모스'는 암몬족속의 '몰렉'신과 같은 신으로 '그모스' 신 역시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모스'신을 위해 신당을 건립했습니다(왕상 11:7-8).
다곤 (Dagon)	'다곤'신은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의 모양을 지닌 우상으로 블레셋인들의 신입니다(삼상 5:2, 대상 10:10). '다곤'은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써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곡물의 신으로 섬겨졌던 것은 날씨가 곡물생산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4 장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삿 2:16-18).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듯이 목회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순종하며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따라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될까요?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습니다(삿 2:22-23). 그래서 일부러 가나안 거민을 모

[삿 2:16]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삿 2:17]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좇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삿 2: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어늘

[삿 2:22]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

두 쫓아내지 않고서 남겨 두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을 잘 섬길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심으로써 당신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삿 2:23] 그 열국을 머물러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
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
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출신지파	대 적	속박기간	평화기간	특 징
웃니엘 (B.C1383-1335)	유 다	메소포타미아 의 구산 리사 다임	8(년)	40(년)	갈렙의 조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3:9-11)
에 호 (1316-1236)	베나민	모압 왕 에글론	18(년)	80(년)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로 에글론을 암살함 (3:12-30)
삼 갈 (1260-1250)	?	블레셋			이낫의 아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을 들 리침 (3:31)
드보라 (1216-1176)	에브라임	가나안 왕 야빈	20(년)	40(년)	여사사, 바락과 협력하여 가나안 장군 시스라 를 물리침 (4:4-5:31)
기드온 (1169-1129)	므낫세	미디안	7(년)	40(년)	삼백명의 용사로 승리를 거둠. 바알의 단을 폐파하여 '여름바알(바알과 싸우는 자)'이란 별명을 얻음. 만년에 '에봇'을 우상화 하고 70 명의 아들을 두어 큰 혼란을 야기시킴 (6:11- 8:35)
돌 라 (1120-1097)	잇사갈			23(년)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10:1,2)
야 밀 (1120-1098)	므낫세 (길르앗)			22(년)	아들 30 과 30 성물을 돔 (10:3-5)
임 다 (1085-1079)	갓 (길르앗)	임몬	18(년)	6(년)	기생의 아들. 큰 승리를 얻었으나 그릇된 서 원을 하여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 (11:1-12:7)
임 산 (1079-1072)	유 다 (베들레헴)			7(년)	아들 30 을 두어 그들을 위하여 타국의 30 여 자를 데려오고, 딸 30 을 타국으로 시집보냄 (12:8-10)
엘 론 (1062-1055)	스불론			10(년)	10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림 (12:11,12)
압 돈 (1062-1055)	에브라임			8(년)	아들 40 과 손자 30 이 70 필의 나귀를 담 (12:13-15)
삼 손 (1075-1055)	단	블레셋	40(년)	20(년)	나실인,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죄임에 빠져 머리를 잘리음. 죽을 때에 수많은 블레셋인을 죽임 (13:2-16:31)

제5장 웃니엘을 통한 구원

1.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거민을 남겨 두셨습니다(삿 3:1-6).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가나안 거민과 연합하고 저들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거민을 남겨 두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2.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간 섬김으로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간구하였습니

[삿 3:1]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삿 3: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하시니 남겨두신 열국은

[삿 3:3]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삿 3:4]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중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삿 3:5]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브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삿 3:6]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다(삿 3:7-11).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 옷니엘을 통해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당신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삿 3: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삿 3: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년을 섬겼더니

[삿 3: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

[삿 3:10] 여호와와 그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삿 3:11] 그 땅이 태평한지 사십년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더라

제6장 에훗을 통한 구원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하시라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삿 3:12-14).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왕 에글론을 18년동안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써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당신은 혹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인해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2.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 에훗을 보내셨습니다(삿 3:15).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삿 3:12]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하시라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삿 3:13]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한지라

[삿 3:1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십팔 년을 섬기니라

[삿 3: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그릅제안)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당신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모압(Moab)족속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입니다(창 19:38). 롯이 소돔땅에 살다가 멸망을 당할 즈음에(BC 2067년경) 천사의 도움으로 피신을 한 이후에 큰 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녀가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에 거주하였는데 위로는 암몬 족속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으며 아랫쪽에는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요단강과 사해바다로 경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는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이었었습니다(신 2:8-9). 모압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

니다(삿 11:17).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습니다(민 22-24장, 수 24:9).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인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을 위한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신 23:6). 사사시대 때 모압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18년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습니다(삿 3:12-14).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 사람 원손잡이 에훗을 통해 에글론을 죽게 하였고 저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삿 3:15-30).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몇 사람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개된 '룻'은 모압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가뭄이 들어 생활이 힘들어지자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아들이 룻과 결혼하였지만 아들은 죽게 되었고 룻은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됨으로써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룻 4:1-15, 마 4:5).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들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대상 18:2). 솔로몬 때는 모압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므로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었지만(왕상 11:1) 저들이 가지고 온 모압신 그모스를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왕상 11:7,33). 아합왕 때까지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은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 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족속은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저들의 수하에 놓여지게 되었으며 그 땅은 주인없이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세기가 지난 BC 1세기 경 나바타인(Nabateans)이 정착하여 그곳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요르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암몬(Ammon)족속



암몬 족속은 룻의 후손입니다(창 19:38). 룻이 소돔땅에 살다가 멸망을 당할 즈음에(BC 2067년경) 천사의 도움으로 피신을 한 이후에 작은 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녀가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에서부터 흘러 내리는 물이 갈릴리에 도달하여 그 물이 다시 요간강으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암몬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암몬의 밑에는 모압 족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는 랍바입니다(삼하 11:1, 겔 25:5).

암몬 족속인들은 성격이 매우 잔인하여 싸움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저들이 원수의 눈을 때며 잉태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일도 자행했다고 전합니다(삼

상 11:2, 암 1:13).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BC1200-1025)때 암몬 족속은 모압의 에글론왕과 동맹을 맺고 여러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사 입다의 시기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사 10장-12장). 암몬의 공격을 받은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설득하여 암몬과 싸워 길르앗을 지키게 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

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반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딸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기록이 사사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삿 11:1-40).

또한 암몬은 또 다시 길르앗을 공격했는데 이 때에는 사울이 저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삼상 11장). 암몬의 지도자였던 나하스는 매우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화친 제의를 거절하면서 “너희 오는쪽 눈을 빼내어라” 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성같이 나타난 사울왕이 소를 잡아 12지파에게 보내어 사람을 규합하여 순식간에 30만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암몬 족속을 무찌릅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뉘지게 되었을 때 남왕국은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렸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바로 암몬 족속 여인이었습니다(왕상 14:21). 어머니가 암몬 족속이다보니 르호보암의 신앙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영적으로 타락했던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사밧 왕때에 암몬은 모압과 에돔과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대하 20장). 웃시아 왕때에는 유다에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였으며 요담왕은 암몬을 재차 정벌하여 저들을 향한 통치를 강화시켰습니다(대하 27:5).

암몬 지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암몬은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요르단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7장 드보라를 통한 구원

1.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속박을 받아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였습니다(삿 4:1-3).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어 사사 드보라를 통해 저들을 구원 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끊임없는 죄를 범할 지라도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범죄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고통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당신은 비록 죄가 끊임없을지라도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를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2.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하길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 하였습니다(삿 4:6-9). 이는 바락이 드보라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

[삿 4:1]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삿 4:2]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삿 4:3] 야빈 왕은 철병거 구백승이 있어서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삿 4:6]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

로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을까요? 당신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지도자의 말과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4. 가나안의 철병거를 대적할만한 군대는 없었습니다. 겨우 1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군대로 가나안 900 철병거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삿 4:10-16). 아무리 힘든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락의 1만 군대가 가나안의 무적 900 철병거 군대를 무찌를수 있었던

불론 자손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으로 가라

[삿 4:7] 내가 아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삿 4: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삿 4:9]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계데스로 가니라

[삿 4:10]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계데스로 부르니 일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삿 4:11]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계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삿 4: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 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삿 4:13]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 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 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삿 4: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에서 내려가니

[삿 4:15]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당신이 매우 힘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서로의 간증을 나눠 봅시다.

5. 겐 족속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습니다(삿 4:17-24). 보통 여인으로서도 엄두도 낼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야엘은 담대함을 갖고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야엘처럼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는 야엘처럼 담대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겐 족속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떠한 담대함을 보여줬습니까? 당신에게 야엘과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까? 당신의 담대함을 반원들에게 나눠 봅시다.

내려도보로 도망한지라
[삿 4:16]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삿 4:21] 그가 준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쥍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삿 4:22]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쥍에 박혔더라

[삿 4:23]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시니라

[삿 4: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겐 족속과 레갑후손

겐 족속은 누구인가?

"[대상 2:55]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성경은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레갑 후손들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겐 족속에 대해 보다 잘 이해를 하려면 '레갑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알 때 보다 명확해집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겐 족속 사람들이 '서기관 족속'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가리켜 겐 족속이라고까지 불리어졌습니다.

성경은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언급된 그들은 주로 '황무지'에 산다는 것입니다.

"[삿 1: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르 가리켜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출 3:1]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렐에 이르매"

겐 족속이 미디안 족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겐 족속이 미디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라면 겐 족속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는 가급적 애굽의 모든 생활습관이나 학습된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곧 '제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애굽의 문화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성경은 또한 그가 겐 족속이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농경생활보다는 유목생활을 했으며 주로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삿 4:11] 모세의 장인 호밤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가족들로 하여금 함께 거주하길 원했습니다.

"[민 10:29]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유목하는 백성으로 남길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간곡히 저들이 함께 하길 원하였습니다.

"[민 10:31]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민 10:32]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간청을 못 이기고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겐 족속의 높은 신앙심과 경건심을 높이 평가하시어 저들과 함께 하는 백성까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16절에는 그들이 '유다 황무지'에 거주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비록 저들이 집을 짓지 않고 농경생활을 하지 않는 유목민이라 할지라도 황무지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황무지에는 유목하기가 매우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유다 황무지에서 거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천대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살아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지극정성으로 겐 족속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좋은 땅을 내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겐 족속을 돌보는 일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여 여러고 성에 거주하였습니다. 성경은 여러고 성을 가리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하더라도 저들을 가장 좋은 평야지대에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점차적으로 여러고를 떠나 아랏 남방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결국은 유다 황무지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쓸모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겐 족속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겐 족속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돕는 천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기 위한 손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돕는 손길을 통해 우리는 환난과 역경의 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나면 우리를 도와 줬던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누구인가?

레갑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의 신앙심과 경건심을 인정 받았습니다.

"[렘 35:18]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렘 35:19]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자손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순종심을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와 시종드는 영예로운 자손

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레위지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와 시종드는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 보다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내린 명령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렘 35:6]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렘 35:7] 집도 짓지 말며 과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렘 35:8]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렘 35:9]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렘 35:10]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될 때 취하게 되어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집행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레 10: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경우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 6: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도록 하셨습니다. 레갑 자손들도 나실인처럼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는 레갑자손처럼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생활가운데 어느 정도 포도주를 취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서구 목회자들은 식사 때나 파티 때 가벼운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제사장의 규범과 나실인의 규범이 다른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사뭇 다른 규범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된 삶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서 장막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과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소유 개념입니다. 이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경생활을 하지 않고서 유목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목생활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먹고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러한 무소유개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갑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조 요나답이 남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받아 드리지 않았으며 오직 그것만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전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렘 35: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 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아내가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예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비록 남편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6. 드보라는 여자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된 역할을 했습니다(삿 5:7). 드보라가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해야 할 관원이 일하지 않았기에 드보라가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위해

[삿 5:7] 이스라엘에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일어나서 어미된 역할을 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일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당신 대신 누군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7. 하나님은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에 속하면서 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하셨습니다(삿 5:23).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 ▶ (그룹제안) 왜 메로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삿 5:23]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둬거둬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제8장 기드온을 통한 구원과 타락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삿 6:6).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심히 미약해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는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 의해 심히 미약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일까요?

2.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 의해 심히 미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삿 6:7-8).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삿 6:6]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삿 6:7]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고로

[삿 6: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중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당신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함께 나눠 봅시다.

3.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삿 6:11-13).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나타난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은 무슨 질문을 하었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삿 6:11]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 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삿 6:12]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삿 6: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미디안(Midian)



미디안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아카바만의 동쪽 시나이 반도의 맞은 편 모압의 남쪽 아라비아 사막 북서부에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유랑 생활을 하였으며 시나이 반도에서 요단 동부 계곡과 가나안으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낙타를 타고서 이동했으며 이들을 가리켜 베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난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창 25장). 성경은 미디안 족

속을 가리켜 이스라엘 족속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을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삿 8:24, 창 37:28).

특히 미디안과 연관되어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낫을 피해 달아났는데 그가 달아난 곳은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두로의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출 2:15-출 3:1).

미디안 족속 중에는 겐 족속이 섞여 살았습니다. 겐 족속을 미디안 족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삿 4:11]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미디안 족속은 모압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며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통간하는 것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이 퍼지도록 도와줬던 족속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민 31:1-12).

하지만 모든 미디안 족속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했던 미디안 족속들의 후예들로 인해 사사기 때에 다시금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삿 6장).

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하셨을 때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삿 6:14-16).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하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혹 기드온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요? 기드온의 태도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당신은 기드온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5. 기드온이 여호와와 사자를 만난줄 알고 죽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삿 6:22-23).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놓인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

[삿 6:14]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 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삿 6:15]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삿 6: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삿 6: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삿 6: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기드온은 여호와와의 사자를 만난줄 알고 두려워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하나님은 죽을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라 명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습니다(삿 6:25-27). 이러한 우상 버림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사로 군계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상을 온전히 버림으로 하나님께쓰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은 죽을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당신이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우상을 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7.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린 일로 성읍 사람들이 분노하여 기드온을 죽이려 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오히려 기드온 편이 되어 바알 우상 섬기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삿 6:28-32). 우리는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

[삿 6:25]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칠 년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삿 6:26]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삿 6:27]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삿 6:28]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헐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삿 6:29]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

한 세력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변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성읍 사람들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린 기드온을 죽이려 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혹 당신은 악한세력(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8.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삿 6:33-40). 그는 양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까? 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였도다 하고

[삿 6:30]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삿 6: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삿 6:32]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룸 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삿 6:33]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삿 6:34] 여호와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좇고

[삿 6:35]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좇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삿 6: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삿 6:37]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 봅시다.

9.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백성중 많은 수를 되돌려 보냈습니다(삿 7:2).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스스로 자궁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지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까?
-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하러 나온 백성을 되돌려 보내셨을까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했음을 뽐냈던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10.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귀가 조치 하셨습니다(삿 7:3).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삿 6:38]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삿 6: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삿 6:40]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삿 7: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삿 7: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었도나 남은 자가 일만 명이었던라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가 초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기드온의 300 용사가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은 적군으로 하여금 혼비백산케 하심으로 저들 스스로 칼날로 치게 하셨습니다(삿 7:19-22).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움직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기드온의 300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체험을 함께 나눠 봅시다

12.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

[삿 7:19]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일백 명이 이경 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삿 7: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삿 7:21]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달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삿 7: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뱀식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억지 부리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향해 조금도 분노하지 아니한채 오히려 인내와 겸손함으로 저들을 높여주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삿 8:1-3). 나는 억지 부리는 사람에 대해 기드온과 같은 인내와 겸손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 (그룹제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억지부리며 분노하였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억지 부리며 당신에게 화를 낼 때에 기드온 처럼 인내와 겸손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기드온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13. 기드온은 모든 미디안 연합군 잔류병사를 진멸하고 수장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은 채 숙곳과 브누엘에 들려 두 성읍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삿 8:15-17). 이는 그가 그렇게 하겠다는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헛된 맹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헛된 맹세로 인해 남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그룹제안) 기드온이 숙곳과 브누엘 성읍 사람을 진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삿 8: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이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삿 8: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망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삿 8:3] 하나님께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넵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삿 8: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대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삿 8:16]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질러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삿 8:17]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헛된맹세를 지키기 위해 잘못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14.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거절한 기드온은 탈취한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드어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케 하는 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삿 7:24-27).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그 어떠한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우리의 올무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것이 올무가 되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무엇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올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일까요?

[삿 8: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삿 8:25]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겹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삿 8:26] 기드온의 청한바 금 귀고리 중 수가 금 일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악대 목에 둘러댈던 사슬이 있었더라

[삿 8: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ephod)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봇을 입고 싶다고해서 만들어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 39: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 39:2]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을 만들었도 [출 39:3]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출 39:4]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얹게 하고 [출 39:5]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짚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교만하여져서 '금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게 했습니다.

"[삿 8: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에봇을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신 것은 에봇은 거룩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실을 얹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고히 짚습니다(출 39:3).

에봇에는 에봇 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허리띠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재질은 에봇의 재질과 같았습니다. 에봇띠는 에봇과 붙어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에봇에는 어깨에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였으며 에봇 띠를 만들어 에봇에 붙여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옷에는 견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견대에는 호마노 보석 두 개를 달았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12지와 연치대로 각각 여섯 이름씩 보석에 새겼습니다. 한쪽 보석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새겨졌으며 다른 한쪽 보석에는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출 28:9] 호마노 두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출 28:10]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출 28:11]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출 28:12]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에봇 견대에 이스라엘 이름을 모두 새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15.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의 집을 후대치도 않았습다. 이는 기드온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삿 8:32-35). 우리의 악을 통해 그 악의 결과가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에 그 악의 결과가 내 자녀에게까지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기드온의 살아 생전에 행했던 악행들의 결과가 저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악을 행할 때 그 악의 결과가 당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까?

16.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얻은 세겜 땅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삿 9:1-5). 골육지친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나는 골육지친된 자들을 사랑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아비멜렉은 어떠한 악을 자행하면서까지 왕이 되었습니까? 혹 당신은 골

[삿 8: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삿 8: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삿 8:34]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삿 8:35] 또 여룸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배운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삿 9:1] 여룸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삿 9:2]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룸바알의 아들 칠십 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은 나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삿 9:3]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육지친에게 상처를 가하면서 당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 골육지친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일까요?

17. 간신히 살아남은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집안을 선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분노하여 심하게 꾸짖었습니다(삿 9:16-18). 우리는 은혜를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갚아야 하며 형제에게 받은 은혜는 형제에게 갚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형제에게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지는 않습니까?
- ▶ (그룹제안) 요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에 분노하였습니까? 혹 당신은 형제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악으로 갚고 있습니까?

18.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행한 포악한 일을 갚으시기 위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삿 9:22-24).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나는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

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삿 9:4] 바알브릿 모에서 은 칠십 개를 내려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삿 9:5]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도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삿 9: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나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나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나

[삿 9:17]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삿 9:18] 너희가 오늘날 일어서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칠십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삿 9:22]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삼년에

[삿 9:23]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삿 9:24]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

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행한 포악한 일을 갚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행한 악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9. 아비멜렉을 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삿 9:26-29). 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 형벌을 가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좋지 못한 일들은 어쩌면 우리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악을 행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셨을 때 아비멜렉에 대한 세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혹 당신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은 당신의 악행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20. 아비멜렉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학살한 이후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학살하였습니다(삿 9:46-49).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 일으킵니다. 악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악이 또 다른 악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

라

[삿 9: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삿 9:27]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밭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삿 9: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삿 9:29]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삿 9:46]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삿 9:47]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리매

[삿 9:48]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고 그것을 가져

을 멈추고 또 다른 악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아비멜렉은 세겜 성읍 사람을 학살한 이후에 계속해서 세계 망대의 사람까지 죽였을까요? 악이 또 다른 악을 낳는다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당신 삶 가운데 악이 또 다른 악을 부르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21. 아비멜렉은 그 형제 칠십 인을 죽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악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여인네의 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고 말았습니다(삿 9:50-57).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지 않으며 그 악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실지라도 그 죄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행한 악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죽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지 않는 일들이 혹 당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죄 값을 치르게 하심이 아닐까요?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삿 9:49]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일천 명이었더라

[삿 9:50]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 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삿 9:51]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삿 9:52]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삿 9:53] 한 여인이 맷돌 윗편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삿 9:54]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삿 9:55]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삿 9:56] 아비멜렉이 그 형제 칠십 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삿 9:57]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9장 입다를 통한 구원과 타락

1.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삿 10:6). 저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하나님께 가장 큰 악이 되는 것일까요? 당신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한 번 돌아 봅시다.

2.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삿 10: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백성을 브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삿 10:7-9). 나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악한 자의 손에 팔렸던 체험이 있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당신의 삶에 있는 문제는 혹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스스로 돌이켜 봅시다.

3.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암몬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삿 10:10-14).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 사

[삿 10: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
[삿 10:8]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십팔 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삿 10: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삿 10: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삿 10: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삿 10: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삿 10: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삿 10: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람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당신은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4. 이스라엘 자손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삿 10:15-16). 이처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곤고를 아시며 마음에 근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삿 10: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삿 10:16]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5.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자녀였기 때문에 형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주민들도 입다를 배척했습니다. 입다는 돛 땅에 거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삿 11:1-6). 우리 인생은 입다처럼 고난의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참고 기다렸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군대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참고 인내할 때에 때가 이르러 고난이 끊어질 것입니다. 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입다가 고난을 참고 인내했을 때 어떤 복이 찾아왔습니까? 당신에게도 입다처럼 고난이 끝나고 복이 찾아온 체험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6.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왜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왔느냐 물었을 때 아르논에서 압복과 요단까지 암몬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삿 11:12-13). 악한 자는 진실을 왜곡합니다. 저가 진실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의 마음이 진실을 거부하기 때문이며 욕심으로 인함입니다. 나는 악한

[삿 11:1]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삿 11:2]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삿 11:3]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돛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삿 11:4]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하니라

[삿 11: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 오려고 돛 땅에 가서

[삿 11:6]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삿 11: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삿 11: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자가 진실을 왜곡하며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왜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왔느냐 물었을 때 암몬 자손의 왕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왜 암몬 자손의 왕은 거짓을 말하였을까요? 당신은 악한 자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아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7.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면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반기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삿 11:29-31). 우리는 사물로도 서원해서도 안 되며 사람으로도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입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였습니까? 당신은 혹 입다처럼 서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었을까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서원은 무엇입니까?

[삿 11:29] 이에 여호와와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삿 11: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삿 11: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8.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반겼습니다. 결국 입다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삿 11:35-36). 나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반겼습니까?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9.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입다에게 불만을 토했습니다(삿 12:1).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입다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악한 자는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에브라임 지파는 왜 입다에게 불만을 가졌습니까? 왜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이 아닌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을까요? 당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된 것처럼 꾸미며 거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거짓은 좋지 않는 것일까요?

[삿 11: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삿 11: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삿 12: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10. 입다는 거짓으로 불만을 토로한 에브라임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에브라임 지파를 쳐서 파했습니다(삿 12:2-6). 우리는 악한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동정하여 악을 더 키워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악한 자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입다는 불만을 토로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입다의 행동이 잘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입다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악한 자를 두려워해서 대적하지 못하거나 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 건들지 않음으로 오히려 악을 더 키운 적이 있습니까?

[삿 12: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툰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로

[삿 12:3]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삿 12:4]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삿 12: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삿 12:6] 그에게 이르기를 씩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씩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제 10 장 입산과 압돈의 타락

1. 입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산은 삼십 명의 아들과 삼십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을 위해 타국에서 여자 삼십을 데려왔고 그의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삿 12:8-9). 이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타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입니다. 오직 믿는 자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어떠한 우상도 멀리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어떠한 우상도 멀리하고 있습니까?
- ▶ (그룹제안) 입산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타국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당신은 입산처럼 자녀를 타국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2. 압돈은 그의 아들 사십과 손자 삼십에게 어린 나귀 70 필을 탔었습니다(삿 12:13-14). 어린 나귀를 모든 자녀와 손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로 사치의 삶을 살았

[삿 12:8]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삿 12:9] 그가 아들 삼십과 딸 삼십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삼십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칠년이라

[삿 12:13]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삿 12:14] 그에게 아들 사십과 손자 삼십이 있어서 어린 나귀 칠십 필을 탔었더라 압돈이 이

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멀리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사 압돈이 행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당신은 얼마나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팔 년이라

제 11 장 삼손을 통한 구원

1.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삿 13:2-4).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다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남을 느낍니까?

▶ (그룹제안) 왜 여호와와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였을까요? 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으로써 하나님의 보다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2.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는데 오직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

[삿 13:2] 소라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삿 13: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삿 13:4]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실인으로 살라고 명하였습니다(삿 13:13-14). 여호와와의 사자가 오직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실인의 살라고 명한 것은 아들 삼손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기 위해 어머니가 나실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나실인의 삶을 삶으로써 나의 자녀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여호와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실인의 삶을 살라고 명하였을까요? 삼손이 나실인이 되기 위해 왜 어머니가 나실인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당신의 삶은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실인의 삶을 삶으로 인해 당신 자녀가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3. 삼손은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삿 14:1-3). 삼손의 생각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실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나는 악으로부터 떠나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삼손의 악은 무엇입니까? 당

[삿 13:13] 여호와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삿 13:14]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삿 14:1] 삼손이 딘내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삿 14:2]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딘내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삿 14:3]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악한 행실에 대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4.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삿 14:4). 삼손의 부모는 이러한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의 행동이 우리 눈에는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의 행동을 지켜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형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어떠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나중에 알고보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5. 삼손이 친구삼은 블레셋 30 동무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던

[삿 14:4] 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얻었습니다(삿 14:15-17). 삼손의 아내는 불량한 블레셋인들과 가까웠으므로 오히려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 할 때 악한 자로 인해 악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악한 자와 가까이 함으로 인해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동무들은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가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악한 자와 가까이 함으로 인해 악한 일을 도모한 적이 있습니까?

6. 블레셋 동무들이 수수께끼를 풀었으므로 삼손이 약속대로 배옷 삼십 벌과 겹옷 삼십 벌을 줘야 했습니다. 삼손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레셋의 다른 성읍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얻은 옷으로 저들에게 주었습니다(삿 14:18-20).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 삼손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삿 14:15] 제철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삿 14: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 어 이르리요 하였으냐

[삿 14:17] 칠 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철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삿 14:18] 제철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발갈지 아니하였더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삿 14:19] 여호와와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삿 14: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의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삼손은 30벌 베옷과 겹옷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고난 가운데 블레셋인을 쳐 죽여 옷을 얻게 된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7. 삼손은 아내의 일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 악한 자를 도륙하셨습니다(삿 15:1-5). 지금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도륙하시기 위해 삼손과 같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삼손과 같은 자는 어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도륙하기 위해 세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삼손이 블레셋인을 도륙한 것과 같이 내 인생을 도륙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는지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요?

▶ (그룹제안) 삼손은 아내의 일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혹 당신의 삶 가운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도륙했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을 도륙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혹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삿 15:1]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 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삿 15:2]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삿 15:3]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삿 15: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화를 달고

[삿 15:5] 화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어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8.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불행이 삼손의 장인과 그 딸 때문임을 알고서 그들을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삼손에게 더욱 큰 화를 당하였습니다(삿 15:6-8). 악인의 삶은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나는 악인의 삶처럼 남을 죽이고 나 스스로도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그룹제안) 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불로 태워 죽였을까요? 그 일로 인해 저들은 어떠한 화를 당하였나요? 당신 주변에 악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자신이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9.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 놓으라 위협하였으므로 유다 사람이 삼손을 결박하여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삼손으로 하여금 결박을 풀게 하시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일천명을 죽이게 하셨습니다(삿 15:11-17).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삿 15:6]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은 대답하되 답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삿 15:7]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삿 15:8]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삿 15:11]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삿 15:12]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삿 15:13]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능히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결박당하여 블레셋 사람 앞에 끌려나온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평상시보다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함께 나눠 봅시다.

10.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를 통해 삼손으로 하여금 힘의 근원을 듣고자 유혹하게 하였습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고자 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들릴라를 버리지 못했습니다(삿 16:4-6). 나는 악한 자를 떠나지 못하고 악한 자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들릴라가 삼손에게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 악한 계획을 품고 당신에게 접근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당한 피해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악한 자임을 알고서도 헤어지지 못할

[삿 15: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르는 동시에 여호와 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지라

[삿 15: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 명을 죽이고

[삿 15:16]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일천 명을 죽였도다

[삿 15:17]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삿 16:4]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삿 16: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꺾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일천알백을 네게 주리라

[삿 16: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때 당하게 되는 상처는 무엇일까요?

11.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들릴라에게 말하고 말았습니다(삿 16:17).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실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나실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나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당신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2. 삼손은 들릴라가 그의 머리털을 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삿 16:18-20).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잘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줄 생각치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삼손이 그의 머리털이 잘릴 때에 무엇을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당신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삿 16:17]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삿 16:18]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삿 16:19]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삿 16:20]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삿 16: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삿 16: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삿 16: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

능력이 당신에게서 없어질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일까요?

13. 삼손은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힘을 달라 간구하였습니다 (삿 16:25-31). 우리는 삼손처럼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삼손의 최후는 어떠하였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삼손처럼 회개의 순간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삿 16: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뺄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삿 16:29]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꺼 의지하고

[삿 16:30]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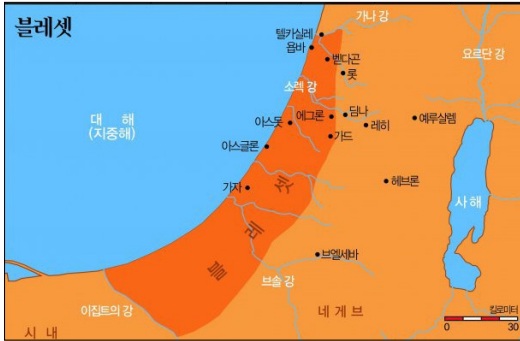
[삿 16:31]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을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 년을 지내었더라

블레셋

그들은 누구인가?

블레셋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다. 그들은 해안민족으로서 그리스 주변의 그레테(Crete)와 에게해의 섬들로부터 남부 팔레스틴 해안 지대로 이주해 와서는 '가나안의 후기 원주민'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은 모두 5개의 성읍(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사와 아스돗에서는 다곤 신을 섬겼고 에그론에서는 바알즈불을 섬겼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철기문화가 발달하였지만 본인들의 고유의 문화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으며 자신들의 언어도 잃어버린채 아스돗 방언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이스라엘의관계

블레셋족(Philistines)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 생활과 중계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노예를 팔아 생계의 일원으로 삼았던 매우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은 BC 11-12세기에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국가에 대해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시돈, 띠로, 비블로스와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얻고자 전쟁하였으며 내륙적으로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영토 전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이 40년간 핍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삿 13: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지만 블레셋은 삼손 사사를 만나 곤욕을 치르고 그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울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다윗왕의 기세를 꺾으려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오히려 다윗왕에 의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솔로몬은 이집트와의 정략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이집트 연합군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가운데 끼인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은 강대국의 패권 변화에 의해 그 세력이 조금도 크게 되지 못하였고 앓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이스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전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팔레스타인과블레셋의관계

한국 말로 '블레셋'은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언어 차이이지 뜻 같은 단어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정치적으로 블레셋(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의 블레셋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서부터 나온 해양민족이지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라비아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경의 블레셋 민족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12 장 선민 백성의 종교적인 타락

1.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돌려 주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미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그 돈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삿 17:1-5). 하나님의 복을 받자고 만든 우상이지만 그 우상이 그 가정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의 뜻대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미가의 어머니가 행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신상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날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2.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던 레위인 소년이 정처없이 떠돌다 미가를 만나 그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삿 17:7-13).

[삿 17: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삿 17:2]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일천일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머니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삿 17:3] 미가는 은 일천일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머니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삿 17:4]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삿 17:5]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삿 17:7]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삿 17:8]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인 소년이 저지른 죄악은 무엇입니까? 왜 레위인 소년은 미가의 제의를 받아 드렸을까요? 혹 당신은 그 레위인 소년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 아직까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단 지파가 다섯 용사를 보내어 취할 땅을 탐지케 했을 때에 다섯 용사는 미가의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우리의 행하는 길이 행통할는지 하나님께 여쭙도록 요청하였습니다(삿 18:1-6).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단 지파의 다섯 용사가 미가의 제사장을 만났을 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삿 17:9]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려 가노라

[삿 17: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삿 17:11]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삿 17:12]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삿 17:13]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삿 18:1]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 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삿 18:2]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피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삿 18:3]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

당신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와 당신 뜻대로 행할 때의 차이는 어떠합니까?

4. 다섯 용사는 라이스가 너무나 취하기 좋은 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단 자손에게 돌아와 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자손들은 선뜻 나서지 않으려 했습니다(삿 18:7-10).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일에 게을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라이스 지역을 탐지하고 돌아온 다섯 용사의 보고를 들은 단 자손의 태도는 어찌했습니까? 당신은 게으릅니까? 당신의 게으름 때문에 혹 하나님의 주시려는 복을 취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5. 라이스 정복을 위해 떠난 600명의 단 지파 용사들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미가의 산당의 것들을 취하려 하였습니다(삿 18:13-14). 하나님은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웃의

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삿 18: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방하여 나로 자기 제 사장을 삼았느니라

[삿 18: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삿 18:6]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삿 18:7]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도 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삿 18: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삿 18:9] 가로대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삿 18:10]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삿 18:13]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삿 18:14]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려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

물건을 탐내는 사람입니까?

▶ (그룹제안) 라이스 정복을 위해 떠난 600명의 단 지파 용사들이 미가의 집에서 행한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이웃의 사람이나 물건을 탐낸 적이 있습니까? 왜 이웃의 사람이나 물건을 탐내는 것이 악한 것 일까요?

6. 미가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인 소년은 단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요청에 기뻐하였습니다(삿 18:18-20). 미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요청이 들어오자 자신이 취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는 제사장으로서 옳지 않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레위인 소년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혹 당신은 레위인 소년과 같이 보다 나은 이익을 위해 자신이 취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7. 단 지파 사람들이 신당의 물건을 취한 것을 알아차린 미가는 그의 이웃들과 함께 단 지파를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미가와 그 이웃들에게 겁

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삿 18:18]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삿 18: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삿 18:20]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삿 18:21]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족과 물품을 앞 에 두고 진행하더니

[삿 18:22]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 서는

을 주고 위협하였습니다(삿 18:21-26). 우리는 이웃에 대해 악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무시하거나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성물이 없어졌음을 알고 뒤 쫓아온 미가의 그 이웃주민들에게 단 지파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혹 당신은 상대가 힘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46절을 읽고 내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살펴 봅시다.

8.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정복한 후에 그 성읍을 취하여 단이라 이름하고 그곳에 신당을 세웠습니다(삿 18:27-31).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욱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취한 이후에 행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

[삿 18:23]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낮을 돌이켜 미가에 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삿 18:24]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나 하느냐

[삿 18:25]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삿 18:26]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삿 18:27]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삿 18:28]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름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삿 18:29]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삿 18:30]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된 천국에서의 12지파 중 단 지파 이름이 빠져 있는데 혹 저들이 우상 숭배 죄를 오래도록 범하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 당신에게 있는 문제와 고난들이 우상 숭배 죄로 인한은 아닌가요?

[삿 18:31]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바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제 13 장 선민 백성의 도덕성 타락

1.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행음한 후에 남편을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집을 찾아가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 하였습니다(삿 19:1-3).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할 의무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에브라임에 거주하고 있던 레위인은 행음하였던 자신의 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당신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 당신의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당신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고통이 아닐까요?

[삿 19: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삿 19:2]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낫달의 날을 보내매

[삿 19:3]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필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2.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는 첩을 데려가기 위해 첩의 집을 찾아왔던 레위인은 첩장인의 권고에 의해 며칠을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첩장인의 권고를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은 떠나야 할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삿 19:4-10).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며 결단을 이루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는 결단한 내용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룹제안) 왜 레위인은 속히 첩을 데리고 떠나지 못했을까요?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결단한 내용이 속히 실행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베들레헬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려던 레위인 일행은 날이 저물기 전에 유숙할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는 외인의 성읍에서 유숙할 수 없다 결정하였습니다(삿 19:11-12). 우리는 악한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와 함께할 때 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악한 자와 함께 함으로 악한 자의 악이 내게 임하도록 내 버려두고 있습니까?

[삿 19:4]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리매 그가 삼 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삿 19:5]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삿 19:6]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삿 19:7]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삿 19:8]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삿 19:9]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삿 19:10]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삿 19:11]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중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 (그룹제안) 왜 레위인은 여부스에서 유숙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4.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에 도착하여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자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지만 오직 노인 한 사람만이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삿 14-21).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할 때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고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레위인 일행을 도와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신은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5.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 유숙할 때에 기브아 성읍 비류들이 집을 에워 싸며 레위인 일행을 끌어내길 원하였습니다. 이는 저들이 레위인 일행에 음행의 죄악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레위인 첩을 취하여 밤새 행음함으로 욕보임으로 그녀를 죽게 하

[삿 19:12]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삿 19:14]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삿 19:15]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삿 19:16]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라

[삿 19:17]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삿 19:18]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헬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헬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삿 19: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짚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삿 19:20]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말라 하고

였습니다(삿 19:22-25). 행음은 하나님을 향해 욕을 보이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더럽힌 죄악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힌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음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기브아 성읍 비류들은 어떠한 죄를 행하였습니까? 음행은 하나님께 어떠한 죄악입니까? 혹 당신은 음행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6. 레위인은 기브아 성읍 비류들에 의해 음행으로 욕보이다가 죽임을 당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쪼개어 이스라엘 12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삿 19:26-30). 이는 죄악으로 썩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해졌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세상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해졌음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레위인은 기브아 성읍 비류들에 의해 음행으로 죽임을 당한 첩의 시체를 어찌하였습니까? 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날 세상은 기브아 성읍에서 일어난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악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해져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삿 19:21]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삿 19: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 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삿 19:23]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이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삿 19: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 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에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니

[삿 19:25]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나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삿 19:26]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누웠더라

[삿 19:27]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삿 19:28]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7. 레위인이 기브아 비류들에 의해 음행으로 욱보이다 죽임을 당한 첩의 시신을 온 이스라엘 엘지파에 보냈을 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삿 20:1-2).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와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레위인이 기브아 비류들에게 의해 음행으로 욱보이다 죽임을 당한 첩의 시신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냈을 때 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형제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형제들이 함께 할 때에 당신만 혼자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8. 레위인으로부터 자초지종 기브아 비류들의 모든 악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심으로 기브아 거민들의 악행을 징계하길 원하였습니다(삿 20:3-11). 우리는 주변의 모든 악을 없애야 합니다. 나는 주변의 모든 악을 정리하여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삿 19: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서 그 마디를 찢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삿 19:30]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삿 20: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삿 20:2]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이었으며

[삿 20:3]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삿 20:4]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삿 20:5]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욱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삿 20:6]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을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라

[삿 20:7]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

▶ (그룹제안) 레위인으로부터 기브아 비류들의 악행에 대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길 원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 비류들에 대해 징계하려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주변의 모든 악을 정리함으로써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9.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에 나아가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악을 제거하라고 권고하였을 때에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 성읍을 감싸들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했습니다(삿 20:12-17). 악한 자는 저들이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는 아닙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나아가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악을 제거하라고 권하였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왜 저들은 그렇게 악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당신 주변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은 악한 태도를 보인 사람은 없습니까? 혹 당신은 지은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니라

[삿 20:8]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정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삿 20:9]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삿 20:10]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에 열 천에 백, 만에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우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삿 20:11]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삿 20: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이뇨

[삿 20:13]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삿 20:14]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삿 20:15] 그 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칠백인데

[삿 20:16]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10.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자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물으며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삿 20:18-25).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직 깨끗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선입견이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선입견이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싸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여주면서 전쟁을 하였어도 번번히 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 당신은 하나님께 어찌할 것을 여주면서 행하였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11.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웠으나 언약궤는 베엘에 있었습니다(삿 20:26-27). 이는 모세의 성막과 같이 온전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성막과 함께 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삿 20:17]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 명이니 다 전사라

[삿 20: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삿 20: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라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삿 20:20]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향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삿 20:21] 베냐민 자손이 기브라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삿 20: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향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향오를 벌이니라

[삿 20: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삿 20:24]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삿 20: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라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일만 팔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삿 20: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우리는 늘 성막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나는 내 몸이 성막이며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실로에 성전이 세워졌으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찌하여 성전과 언약궤가 떨어져 존재하였을까요? 당신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습니까? 혹 당신은 성전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2. 이스라엘 자손이 세번째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 여쭈는 때에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라고 여쭈었습니다(삿 20:28).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미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 놓은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듣는 자세입니다. 나는 모든 선입견을 없애며 나의 뜻의 명분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세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세는 어떠했

앞에 드리고

[삿 20:27]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삿 20:28]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나가는 자세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전치 못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13. 이스라엘 자손이 세번째 베냐민 자손과 싸웠을 때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삿 20:36-42). 저들이 이러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일이 가능할 뿐입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자손이 세번째 베냐민 자손을 대하여 싸웠을 때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당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삿 20: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간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삿 20:37]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라

[삿 20: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악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삿 20:39]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삿 20:40]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삿 20: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삿 20: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14.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딸들을 아내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삿 21:1). 이는 악행을 행하는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무엇을 맹세하였습니까? 저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딸들을 아내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방인과 같은 자에게 자녀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15.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인들을 진멸시켰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할 위기에 처함을 알고 저들이 행한 일을 후회하였습니다(삿 21:13-14).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를 좀더 사랑으로 대하여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형제의 허물이 가려집니다. 나

[삿 2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삿 21:13]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삿 21:14] 그 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하므로

는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후회될 일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 후회하였습니까? 혹 당신은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형제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16.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삿 21:25).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더라면 각각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각각 우리들의 소견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삿 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 | | | |
|-----------------------|-----------------------|-----------------------|-----------------------|
| ▶ 사역학학사과정 | ▶ 목회학학사과정 | ▶ 사역학석사과정 | ▶ 목회학석사과정 |
| - 인원: 00명 | - 인원: 00명 | - 인원: 00명 | - 인원: 00명 |
| - 접수: 온라인 접수 | - 접수: 온라인 접수 | - 접수: 온라인 접수 | - 접수: 온라인 접수 |
|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 자격: 대학교 졸업자 | - 자격: 대학교 졸업자 |
|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